

수유부의 유선질환을 의미하는 한의학 용어 연구

이선영, 오준호¹, 차응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¹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A study of Korean Medicine Terminology that Meaning Breast Diseases During Breastfeeding

Seonyoung Lee, Junho Oh¹, Wungseok Cha, Namil Kim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¹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Korean medicine terminology related with breast disease that occurs during breastfeeding. It attempts to suggest aguideline so that identical terms can be used to explain the medical conditions of breast-feeders from the perspective of oriental medicine.

Method : This paper is based on what is recorded in medical books. It has organized the relations between the terms grounded on the analysi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cepts of the terms contained in them. The medical book chiefly used here was 『*Uibangyuchwi*(醫方類聚)』. To organize the terms, thesaurus was utilized.

Result & Conclusion : The terminology of Korean medicine related with breast disease that occurs during breastfeeding is prescribed from the aspects of the causes, affected areas, or pathological conditions. The clinically typical terms of korean medicine are ‘Tuyu(妬乳)’ and ‘Yuong(乳癰)’. The two are distinguished by whether one has systemic symptoms or not. If one has no systemic symptom, it is ‘Chwiyu(吹乳)’ or ‘Tuyu’, and these two are distinguished by whether one has ‘Chang(瘡; sores)’ or not. It is significant to organize the concepts of korean medicine terminology since they are directly related with treatments in the field.

Keywords : breastfeeding, breast diseases, mastitis, *Uibangyuchwi*, Korean Medicine

I. 서 론

모유수유는 영양학적, 면역학적, 심리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 생후 2년(혹은 그 이상)까지는 다른 음식을 병행하며 계속 모유수유하기를 권장하고 있다.¹⁾ 우리나라는 모유수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²⁾ 최근 모유수유에 관심이 높아지고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엄마들이 늘어가고 있다. 모유수유를 시작

하면서 엄마들은 보통 ‘젖몸살’이라고 표현하는, 유즙 배출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아기 낳는 진통보다 젖몸살이 더 아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산모들이 경험하는 불편감은 크며, 이런 것들로 인해 모유수유를 조기에 중단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다.

젖몸살과 관련하여 서양의학적으로 유방울혈, 유선염 등의 병명이 있는데 이들을 총괄하여 지칭할 때도 유선염이라고 한다.³⁾ 일반적으로 감염성 유선염과 혼동의

접수 ▶ 2010년 6월 29일 수정 ▶ 2010년 7월 23일 채택 ▶ 2010년 8월 2일
교신저자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1-0671 E-mail southkim@khu.ackr

1) <<http://www.who.int/features/factfiles/breastfeeding/en/>>
2) 차선화 외, 「수유 중 약물 복용에 따른 불안과 수유율」. p.4
3) World Health Organization. 「Mastitis:causes and management」. p.1

우려가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유선의 유증분비 중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유선질환이라고 별도로 명명하고자 한다. 유선질환과 관련된 한의학적 치료가 다용되는 만큼 치료 효과나 안전성에 관한 연구들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반 연구들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유선질환의 한의학 용어 개념 정리를 목적으로 했다. 본 연구는 의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였으며, 수유부의 의학적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준에 송 등4), 김 등5) 그리고 김 등6)에 의해 유선질환의 한의학 용어를 유사한 서양의학 질병과 대비시킨 작업이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유선질환의 대표적인 한의학 용어들이 정리되었으나, 용어 개념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며 용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조망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근거하여 여러 용어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였고 각 용어들이 임상적으로 구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醫方類聚』를 기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방유취』는 중국의 의서와 고려, 조선초까지 고유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는 등 방대한 수집량으로 후대 의서를 복원할 때 주요 근거서적으로 인정받았다.7) 또한 『의방유취』의 편집과정 중에 당시 한국 한의학에서 유선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의견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의방유취』에 편집된 의학 내용을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방유취』의 내용 중 유선질환에 대해 주요 의론을 담고 있는 『千金方』, 『聖惠方』, 『婦人良方大全』, 『直指方』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했다.

II. 본 론

1. 연구방법

유선질환의 한의학적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관련된 한의학 용어들의 시소러스를 활용했다. 시소러스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지식의 보고’라는 뜻인데, 어휘를 내용상으로 분류하여 관련어를 표시한 어휘

사전을 의미하며 지식체계의 한 형식이다.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간의 관계를 구성하는데서 출발하여 현재는 정보 검색 분야에서 관련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표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으로 인하여 시소러스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여기에는 유의어, 반의어 뿐 아니라 개념의 상위, 하위의 관계에 의한 관련어도 포함되어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검색하게 되는 것이다.8) 정보검색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시소러스의 구축은 관련 분야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다. 한의학 분야에서도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검색용어의 어휘통제를 위해 시소러스 개발9)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표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시소러스를 구성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용어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Figure 1> Web site image
(National assembly library » Digital library » Thesaurus)

고전용어, 한국역사용어, 도서관 검색 등에서 시소러스가 활용되고 있는데 <Figure 1>에서 국회도서관의 시소러스 검색 웹페이지를 통해 시소러스를 시각화하여 나타냈다. 한의학을 검색어로 했을 때 동의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등이 함께 검색되었다. 대표 용어와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에 연계지어 접근하기 용이하다.

4)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pp.270-277

5) 김상진, 유동렬. 「乳癰의 동서의학적 고찰」.

6) 김의일, 유동렬. 「유방질환의 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7)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pp.2-3.

8) 백유상. 「한의학정보 검색엔진 개발을 위한 시소러스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1).

9) 한국한의학연구원. 「'99 한방치료 기술개발 연구 초록집 - 인터넷상 한의학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검색도구개발」

한의학 용어의 시소러스는 한국고전번역원 시소러스 작성지침¹⁰⁾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① 시소러스의 구성

- 우선어
- 초점의미
- 비우선어(유의어)
- 상위어
- 하위어
- 관련어

② 용어의 작성

- 우선어 - 출현빈도수가 높은 용어가 주로 선정된다. 동의어 가운데 정식명칭이다. 동일한 개념의 용어가 나열된 경우 출현빈도수 또는 통용성이 가장 높은 용어이다
- 초점의미 -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유의어 - 우선어와 등가관계인 단어(약칭, 이칭, 별칭)이다
- 상위어 및 하위어 - 상위어와 하위어는 다수가 가능하다. 상하의 계층구조가 분명한 형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관련어 - 용어간 관련성이 높아서 상호 관련어 지정이 가능한 것만 선정한다. 관련어는 선정된 우선어 목록 안에서 선정한다.

2. 한의학 의서에 기록된 용어

한의학 의서에서 乳와 관련된 질환은 「婦人」이나 「乳」에서 언급되었다. 乳의 病 중에서 유즙의 정체와 관련된 병증은 절반에 달할 정도로 그 내용이 다양하고 자세하다.

한의학 의서에서 수유시 유즙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병증의 용어로 吹乳, 妬乳, 乳癰이 자주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發乳, 爛發, 乳瘡, 乳腫, 吹爛, 乳毒, 病爛, 爛癰瘡, 등의 용어가 있었다.

유선질환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특징을 반영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 용어들은 원인을 뜻하거나 발병부위를 나타내기도 하며 병태를 반영하기도 했다.

1) 원인을 뜻하는 용어

유선질환 중에 원인을 뜻하는 용어는 吹乳와 妬乳가 있다. 두 질환은 산후에 발병하는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 吹乳

吹乳는 吹爛와 동일한 용어다. 사전상으로 乳와 爛는 모두 젖을 가리킨다. 『東醫寶鑑』에서는 吹爛와 吹乳가 같다고 언급하였고,¹¹⁾ 『聖惠方』과 『婦人養方大全』은 吹爛를 주로 사용했다.

吹乳의 원인에 대해 『부인양방대전』과 『성혜방』에서는 “젓먹이가 젓꼭지를 문채로 잠들어서 들숨이 통하지 않아 젓이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 축적되어서”¹²⁾ 발생하였다고 하며, “아이의 콧김이 젓에 붙었다가 體熱을 만나”¹³⁾ 발생한다고도 했다. 吹乳의 ‘吹’는 젓먹이의 입김이나 콧김을 뜻하는 단어로 원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吹乳의 증상으로는 『婦人良方大全』에서는 腫硬이 대표증상이며 腐結疼痛하거나 혹은 不痒不痛하고 腫硬如石하다고 했다. 『聖惠方』에서는 腫이 되어 腐結疼痛이 있는 것을 吹爛라고 했는데 吹爛를 치료하는 처방들은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보았다. 吹乳의 원인 및 증상은 유선질환의 양방명 중 울혈과 유사하다. 吹爛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산후에 자식이 있는 상태는 外吹爛라 하고, 임신 중인 경우는 內吹爛라고 한다.¹⁴⁾

吹爛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腫이 심해져 癰이 된다고 했다.¹⁵⁾

(2) 妬乳

妬乳는 산후에 배출되어야 할 유즙이 안에 축적되었다가 結을 형성하여 발생¹⁶⁾한다. 유두의 작은 熱瘡를 긁어 누른 즙이 나오는 상태가 낫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투유병이 되며,¹⁷⁾ 妬乳 혹은 妬乳라는 하기도 했다.

11) 『동의보감』 “吹乳一曰 吹妬”

12) “夫產後吹爛者，因兒喫爛之次，兒忽自睡，呼氣不通，乳不時洩，蓄積在內，遂成腫硬，壅閉乳道，津液不通”

13) “因兒鼻中氣吹着爛房，更遇體熱”

14) 『의방유취秘傳外科方』 “有兒者，名爲外吹爛，有孕者名爲內吹爛”

15) 『부인양방대전』 “若不急治，腫甚成癰。產後吹爛，最宜急治，” 『성혜방』 “若不急治，腫甚成癰也。”

16) 『친금방』 “產後宜勤濟乳，不宜令汁蓄積，蓄積不去，便結不復出，惡汁於內”

17) 『부인양방대전』 “婦人女子乳頭生小淺熱瘡，搔之黃汁出，浸淫爲長，百種療不差者，動經年月，名爲妬乳病”

10) 한국고전번역원 시소러스 작성지침 <<http://thesaurus.itkc.or.kr/>>

투유는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하며, 부위가 단단해져서 통증이 있다.¹⁸⁾ 結脹不消¹⁹⁾, 乳生瘡, 乳腫痛²⁰⁾이 있기도 하다. 吹乳와 마찬가지로 치료되지 않고 진행하면 瘡, 膿이 생기고 熱이 盛한 癰이 이루어진다.²¹⁾ 吹乳, 妬乳, 乳癰의 병을 비교했을 때 가벼운 병은 吹乳, 妬乳이고 위중한 병은 乳癰이라고 했다.²²⁾ 투유는 유두에 수포창이 생긴 후 낫지 않고 오래되어 발생하여, 투유를 치료할 때 瘡를 치료하는 외치법이 많았다.²³⁾

투유의 원인은 乳汁不下로 산후에 발생하는 원인적 측면을 강조했다. 『東醫寶鑑』에서 吹乳를 치료할 때 약물사용과 함께 취유를 마사지 등으로 유즙을 빼내는 방법으로 1차적인 처치를 하는데, 투유의 초기에도 역시 흡인이나 마사지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유즙을 제거한다. 투유의 초기는 일부 吹乳와 유사하다고 보인다. 다만 투유는 유두에 수포성 瘡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妬乳는 양방명으로 유두의 수포가 동반되어 있는 율혈이나 유관이 막혀있는 유관염, 비염증성 유선염과 가깝다. 칸디다증도 극렬한 통증과 유두상의 병변이 있다는 점에서 투유와 가깝다.

2) 병태를 반영한 용어

병태를 반영한 용어로 乳癰, 乳毒, 乳瘡, 發乳癰, 乳癰腫硬如石, 乳癰久不差, 乳腫, 乳疽, 乳結核, 乳癰脹腫疼痛, 懷胎之癰이 있다.

(1) 乳癰

乳癰은 乳에 생기는 용저이다. 吹乳, 妬乳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50세 이후 여성들로 수유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유옹은 吹乳, 妬乳와 마찬가지로 통치의 중경통 등 국소병증이 있는데, 焮腫疼痛²⁴⁾, 熱毒²⁵⁾에서 보이듯 열증이 두드러진다. 단지 국소적 열증 뿐 아니라 寒熱至甚, 身體壯熱²⁶⁾, 惡發寒熱²⁷⁾이 전신적

으로 나타나고, 煩躁²⁸⁾, 疼悶²⁹⁾등 흉부증상이 더해진다. 치료법에 있어서 투유가 통처에 외용제를 붙이거나 씻는 등 외치법을 우선 활용했다면, 유옹은 바로 내복약을 투여하는 적극적인 치료법을 사용했다.³⁰⁾

유옹은 용저의 일반적 변증 분류 체계를 가진다. 진행 상태에 따라 乳瘡, 發乳癰, 乳癰腫硬如石, 乳癰久不差, 乳腫, 乳疽, 乳結核, 乳癰脹腫疼痛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은 증상을 나타내는 일반 용어이기도 한데, 유옹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다. 懷胎之癰은 임신시 발생하는 유옹으로 이 역시 용저의 일부 양상으로 포함했다.

양방명 염증성 유선염은 국소 증상 외에도 감염으로 인해 전신증상이 있는 점에서 유옹과 유사하다. 외과적인 방법으로 농을 제거해야하는 유방농양은 癰에 해당한다. 염증성 유선염은 감염균이라는 병원에서 접근했다면 유옹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진행경과를 포괄하는 증후군에 가깝다. 질병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질병이 확장됨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3) 발병부위를 나타낸 용어

발병부위를 나타낸 용어로는 發乳, 爛發, 發乳癰, 乳毒이 있다.

(1) 發乳

發乳, 發爛, 爛發, 發乳癰은 젖을 의미하는 爛, 乳를 사용한 용어이다. 爛은 乳와 둘다 젖을 의미하는 단어³¹⁾로 동의어로 吹乳의 경우 동일한 용어라고 앞서 밝혔다. 爛과 奶와 같은 음훈을 가지며 속자는 妳이므로 發爛 發奶 發妳는 서로 동일하다고 본다. 유방 및 유선질환이 세부적으로 정리되기 이전에 발병 부위로서 증상을 뜻하던 용어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8) 『친금방』 引熱溫壯, 結堅牽掣痛, 大渴引飲, 乳急痛, 手不得近, 成妬乳, / 『성혜방』 壯熱, 大渴引飲, 牢強掣痛, 手不得近是也

19) 『부인양방대전』

20) 『성혜방』 “治產後妬 太平聖惠方作“妬”. 乳生瘡方”“治產後妬. 乳腫痛方”

21) 『성혜방』 “初覺, 便以手助捏, 去汁, 并令傍人助喇引之, 不尔, 或作瘡有膿, 其熱勢盛, 則成癰也.”

22) 『부인양방대전』 “輕則爲吹奶, 妬乳, 重則爲乳癰”

23) 『친금방』 적룡피당방, 천마당방, 비조고방, 황련호분산방, 녹각산은 모두 창 부위에 바르거나 씻는 외용법을 활용했다

24) 『성혜방』 “治婦人乳癰, 焮腫疼痛,”

25) 『부인양방대전』 “乃急于痛 宜服连翘汤. 利下熱毒”

26) 『성혜방』 “治婦人乳癰疼痛, 寒熱至甚”, “治婦人乳癰, 身體壯熱, 疼痛不可忍方: 肘後方治產後不自乳, 見畜積乳汁結作癰.”

27) 『직지방』 “惡發寒熱 煩燥大渴 是其證也 甚則嘔吐無已 咽膈窒碍 何耶”

28) 『직지방』 상동

29) 『성혜방』 “治婦人勒乳後疼悶, 乳結成癰方”

30) 『친금방』 적룡피당방, 천마당방, 비조고방, 황련호분산방, 녹각산은 모두 창 부위에 바르거나 씻는 외용법을 활용했다. 연고당, 유옹방, 유옹시작방 등은 내복하여서 유옹을 치료한다.

31) 『漢韓大字典』 “乳 젖유 젖먹일유 기를유 낳을유 어머니유”, “爛 젖내 젖어미내 낫잠내 어머니내”, “奶 젖내 젖어미내”, “妳 爛의 속자”

乳와 癰가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두 쓰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의서에서 癰과 乳를 선택할 때에는 신체 구성부위로 보았는지 혹은 기능을 고려했는지에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聖惠方』, 『婦人良方大全』은 산후 유즙을 분비하는 기능이 문제가 되었던 병증을 강조하여 ‘癰’를 사용하여 吹癰라고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外形篇」의 목차가 眼, 耳, 鼻, 頸項, 胸, 乳, 腹 등으로 신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에 인체의 구조 부위로서 ‘乳’자를 활용하여 吹乳, 妬乳, 乳癰이라고 했다. ‘癰’는 여성의 유즙 분비를 고려한 기능적 개념이고 ‘乳’는 남녀를 포함해 신체구성부위와 관련되었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乳毒

『성혜방』에 乳毒이라는 용어가 있다. 유즙이 나오지 않아 안으로 맺혀 부은 것을 乳毒이라고 이름하였고 癰이 되기 쉽다고 하였다.³²⁾ 본 내용 중에 더 서술된 바는 없지만 火毒, 腫毒과 같이 일반적으로 毒자가 들어가 사기가 침범된 상태를 나타낸다. 乳에 어떤 병이 발현해 있는 상태로 인식할 수 있다. 진행 경과 상으로 용이 되지 않은 吹癰나 妬乳와 유사한 상태라 여겨진다.

3. 한의학 용어 분류

유선질환을 뜻하는 용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 중 임상적으로 유의성 있는 병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우선어로 하여 시소러스를 만든다.

1) 유선질환을 의미하는 한의학 용어 대표개념

임상적으로 유선질환은 일련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데, 吹乳, 妬乳, 乳癰은 그 단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 개념이다. 유즙 배출이 곤란해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1차적으로 접근할때는 취유나 투유의 범주로 봐야 한다. 취유는 투유의 초기와 유사하여 투유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투유를 산후 유선질환의 우선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취유와 투유 모두 腫, 硬, 痛의 증상이 공통되는데, 다만 투유는 壯熱, 大渴 등 열증이 나타난다. 취유와 투유를 구분하는 보다 명확한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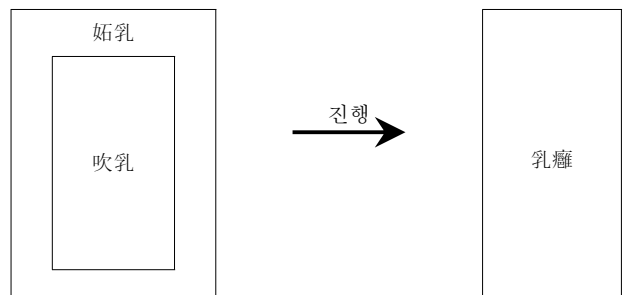
瘡의 유무이다. 유두를 살펴서 창이 있으면 투유이고 별증상이 없으면 취유로 구분한다.

乳癰은 吹乳와 妬乳가 진행하여 발생한다. 吹乳와 妬乳가 癰이 아니라고 의서에 여러차례 강조된다. 질병의 경중 상으로 吹癰와 妬乳는 경한 상태이며, 유옹은 중한 상태라고 했다. 유옹은 吹乳 妬乳와 마찬가지로 腫, 硬, 痛의 국소증상을 가지면서 열증이 있다. 보통 투유에서 ‘赤’이라고 표현되던 열증은 유옹에서 ‘赤紫色’ ‘焮’으로 심화되었다. 惡寒과 병행되고 있음을 뜻하는 寒熱至甚, 惡發寒熱의 증상이 나타나고 煩躁, 疼悶의 흥부증상이 있으며 심할때는 嘔逆이 나타나는 등 전신 증상들이 있다.

취유, 투유와 유옹의 특징을 표로 나타내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Figure 2>

<Table 1> Distinguishing Mark of Chwiyu(吹乳), Tuyu(妬乳) and Yuong(乳癰)

용어	특징	
妬乳(광의)	吹乳	腫 硬 痛
	妬乳(협의)	腫 硬 痛 + 熱 瘡
乳癰	腫 硬 痛 + 惡寒發熱(熱盛) 嘔逆	



<Figure 2> Relation of Chwiyu(吹乳), Tuyu(妬乳) and Yuong(乳癰)

2) 유선질환을 의미하는 한의학 용어 시소러스

유선질환을 뜻하는 용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명명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소러스를 만든다. 우선어를 중심으로 유의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를 밝힌다.

32) “治婦人乳汁不下, 內結成腫, 名爲乳毒, 乃急於癰也”

우선어 : 吹乳, 妬乳, 乳癰

① 吹乳

초점의미 - 산후 유즙 축적이 원인이 되고 腫, 堅, 痛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우선어(유의어) - 吹癰

상위어 - 妬乳, 有毒, 發乳

하위어 - 內吹癰, 外吹癰

관련어 - 乳癰

② 妬乳

초점의미 - 산후 유즙 축적이 원인이 되고, 腫, 堅, 痛의 증상이 있는데 熱症이 두드러진다. 수포성瘡이 있다.

비우선어(유의어) - 妬乳

상위어 - 乳毒, 發乳

하위어 - 吹乳

관련어 - 乳癰

③ 乳癰

초점의미 - 吹癰, 妬乳 등이 원인이 되어 腫, 堅, 痛의 증상이 있다. 惡寒發熱 嘔逆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熱症이 특히 심하다.

비우선어(유의어) - 內癰

상위어 - 發乳

하위어 - 乳腫 乳脹 乳癰腫硬如石 石癰 乳結核 乳疽 癭

관련어 - 吹乳, 妬乳

으로는 乳癰, 乳毒, 乳脹, 乳癰腫硬如石, 乳結核, 乳疽, 懷胎之癰이 있다.

2. 임상적으로 유선질환은 妬乳와 乳癰으로 대부분된다. 乳癰과 妬乳는 전신증상의 유무로 판단하는데 전신증상이 있으면 乳癰이다. 전신증상이 없는 경우는 吹乳와 妬乳로 나눌수 있는데, 둘은瘡의 유무로 구분한다. 乳癰은 일반 응저와 유사하게 변증되는데, 병태에 따라 乳脹, 乳癰 腫硬如石, 乳結核, 乳疽, 懷胎之癰으로 구분한다.
3. 吹乳와 妬乳는 유즙축적으로 발생한다. 吹乳는 붓고 딱딱해지는 것이 주증상이다. 양방명으로 유방울혈과 유사하다. 妬乳는 열증이 있고 통처가 단단해져 통증이 있다. 양방명으로 유두에 수포창이 있는것, 유관염, 칸디다증이 포함되었다. 乳癰은 吹乳와 妬乳과 진행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吹乳 妬乳와 같이 산후 뿐 아니라 갱년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乳癰은 국소적으로 열증과 통증이 심하며 惡寒發熱이나 嘔逆과 같은 전신증상이 포함되기도 하다. 양방명으로는 유선염과 유사하다. 發乳는 乳에서 생기는 병증으로 가장 광범위한 의미다. 乳毒은 吹乳, 妬乳와 유사하다. 乳腫 乳脹 乳癰腫, 乳疽, 乳結核 등은 병태를 반영하는 유옹의 하위개념이다.
4. 의서의 기록을 근거로 했을때 유선질환과 관련된 한의학 용어는 치료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유선질환의 한의학 용어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吹乳와 妬乳는 마사지나 흡인을 통한 물리적인 방법과 외용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활용되었다. 乳癰은 바로 내복약을 투여하는 적극적인 치료법을 사용했다.

III. 결 론

모유수유 중 젖몸살은 진통에 비견될 정도로 수유모들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증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선의 유즙분비 중 발생하는 질병을 유선질환이라고 명명하였고, 그에 대한 한의학 개념들을 의서를 근거로 하여 정리했다.

유선질환을 뜻하는 용어는 명명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 개념들의 유기적 관계를 함께 보기 위해 본문에서 시소러스를 활용하여 유선질환을 의미하는 한의학 용어를 정리했다.

1. 유선질환을 원인, 발병부위, 병태적 측면에서 규정했다. 원인적 측면으로 吹乳와 妬乳가 있으며, 발병부위적 측면으로 發乳, 發癰가 있다. 병태적 측면

본 논문에서는 유선질환의 한의학 용어 시소러스를 통해 한의학적 개념을 정리했다. 한의학 의서에 기록된 의론과 처방은 저자와 당시대의 의학경험의 과학적 분석이다. 차후 한약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의서의 기록을 통해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제반 연구의 기초가 된다.

참고문헌

1. 김상진, 유동열. 「유옹(乳癰)의 동서의학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6;15(1).
2. 김의일, 유동열. 「유방질환의 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13(1).
3. 민중서림 편집부.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2006.
4. 송병기. 『漢方婦人科學』. 행림출판. 1995.
5.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6.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院 交点. 『校正 醫方類聚』. 의성당. 1993.
7. 차선화, 한정열, 김해숙, 전선영, 허윤희, 이경자, 안현경, 최준식, 김경아, 신순문. 「수유 중 약물 복용에 따른 불안과 수유율」. 대한주산의학회잡지. 2003;14(3).
8.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98.
9. 국회도서관 시소러스검색<<https://u-lib.nanet.go.kr/dl/SearchIndex.php>>
10. 백유상. 「한의학정보 검색엔진 개발을 위한 시소러스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19(1).
11. 민족문화추진회 시소러스팀. 「한국고전번역원 시소러스 작성지침」. 2007. <<http://thesaurus.itkc.or.kr/>>
12. 한국한의학연구원 『'99 한방치료 기술개발 연구 초록집』.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Result.jsp>>
13. WHO 10 facts on breastfeeding. 2009. <<http://www.who.int/features/factfiles/breastfeeding/en/>>
14. World Health Organization, 「Mastitis:causes and management」, WHO/FCH/CAH/00.13,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00 <http://www.who.int/child_adolescent_health/documents/fch_cah_00_13/en/>